

북스

Books

함흥차사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한국사 상식 바로잡기 박은봉 지음

고려를 건국한 인물은 태조 왕건이다. 당연하게 '왕'이 생기고 이름이 '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왕건 가문은 원래 성씨가 없는 집안이었다. 왕건이 왕이 된 다음에 '왕'자를 성으로 썼을 뿐이다. 고려시대 이전에는 왕족과 극소수의 귀족들만 성을 가졌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호족집안에서 태어난 왕건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 역사에서 내시들이 모두 거세한 성 불구자는 아니었다. 조선시대에만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고려시대의 내시는 과거 급제나 음서로 벼슬에 오른 문벌 집안의 아들, 무공을 세웠거나 학식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 엘리트들이었다.

'한국사 100장면' 등의 저술로 독자들과 친숙한 역사학자 박은봉씨가 쓴 '한국사 상식 바로잡기'는 왜곡, 왜곡된 한국사 용어와 역사적 사실 44개를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재검증한 책이다.

그가 책을 쓴 동기는 일본 제국주의 사관과 해방 후 역사 재정립 과정에서 빚어진 역사적 오류, 조선시대 성리학적 지배질서에 의해 왜곡된 역사적 사실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다.

사자성이 '함흥차사'는 이복 동생들을 도륙한 태종 이방원에게 환멸을 느껴 함흥으로 떠난 태조 이성계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이성계가 태종이 보낸 사신들을 모두 죽였다는 것이 정설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성계가 죽인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함흥차사'의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박순과 송유가 거론되지만, 이들은 희생자로 거론되는 '함흥'과는 무관한 인물들이다.

후대에 임금에게 시호를 요청하면서 이들의 후손들이 가공(?)한 사실이 정설로 굳어진 사례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온달'이 진짜 바보였을까. 저자는 '바보 온달' 이야기는 설화와 사실이 버무러진 단편적인 것이라고 분석한다.

삼국사기에는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에게 무공을 배워 고구려 평원왕의 사위가 됐다고 전해지지만, 온달은 뛰어난 무예를 겸비, 외적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등 원래 똑똑한 장수였다는 것이다.

국왕의 문란함과 향락의 놀이터로 묘사되는 신라의 '포석정'은 '주지육림'의 놀이터가 아니라 제사를

모시는 신성한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경애왕이 이곳에서 '늑대' 견훤의 칼을 받았다는 데는 심각한 오류의 개연성이 있다.

'포석정' 주변에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가 전해지는 우물인 '나정'이 있고 신라 초기 왕들의 무덤이 즐비, 결국 왕이 놀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다. 또 경애왕이 술잔을 포석정에 띄워놓고 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견훤이 신라를 정벌한 때는 927년 음력 11월로 한겨울 추위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는 지 의문이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등 한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3명의 여왕을 배출한 나라는 신라 뿐이다. 유독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여왕성이 지위가 높았을 것이로 추정한다.

신라에서 여왕의 즉위는 '성골(聖骨)'이라는 혈족 의식의 산물로 여성의 지위와는 무관하다는 게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성골 가운데 대통을 이을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즉위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우리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왜곡된 사실들을 '어원' '인물' '유적·유물' '책·문헌' '정치·사회' 등 5개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책과 함께〉1만6천8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우리 역사에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왜곡된 사실들이 많다. 왕의 놀이터로 왜곡된 신라의 포석정.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산은 산 물은 물' 만화로 나왔다



보성 출신 작가 정찬주씨의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이 만화로 출간됐다.

만화 '산은 산 물은 물'(전 2권)은 한국 현대 불교의 가장 큰 스님으로 추앙받는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원작 중에서도 스님과 관련한 것만 뽑아 스토리를 엮었다.

'영원한 자유'를 갈망했던 청년이 어떤 계기를 통해 불교 사상에 빠져들어 출가를 결심하게 됐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길래 8년간 잠을 자지 않은 '장좌불와(長坐不臥)' 수행을 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성철 스님에 대한 관심은 크나 원작의 두께(약 700쪽)에 압박을 느꼈던 독자들이라면 한 번쯤 들춰볼 만하다. 〈행복한 만화가게〉각 권 9천800원

인문학 자양분으로 통찰의 힘을 키워라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정진홍 지음

최근 인문학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편으로는 인문학을 접목한 다양한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출신으로 '감성 바이올린 퍼트러러' 등의 베스트셀러를 펴낸 정진홍씨가 펴낸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정진홍의 인문 경영'은 인문학과 경영을 접목시킨 책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CEO를 위한 인문학 조찬 특강 미디어 21'을 진행하고 있는 정씨가 3년간 강의한 내용을 묶은 이 책은 'CEO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고 나를 경영하고, 일으키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일반인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탄탄한 글쓰기를 자랑하는 정 씨는 이번 책에서 '역사'



'창의성' '디지털' '스토리' '욕망' '유혹' '매너' '전쟁' '모험' 등의 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저자가 말하는 이 책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다. '인문학의 자양분을 섭취해 저마다의 삶의 밑동으로부터 통찰의 힘을 키우자'는 것.

책의 처음과 마지막은 청나라 최대 전성기인 강희·옹정·건륭 3대의 역사와 로마제국 쇠망사를 이야기하며 '통찰'을 이끌어 내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심리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욕망, 유혹의 주제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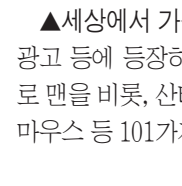
또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통해 인간 창의성의 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하며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으로 400년 이상 된 고전을 읽을 것, 물입의 즐거움을 배울 것 등을 제안한다. 그밖에 세계대전의 영웅인 마셜, 맥아더, 아이젠하워, 패튼 장군과 남극 탐험의 영웅 새클턴 등 역사를 빛낸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사람 경영과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 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같은 제목으로 두권의 책이 더 출간될 예정이다.

〈21세기북스〉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책



▲내 몸 안의 과학=예병일 연세대 의대 교수가 인간의 탄생에서 유전자 조작까지 몸에 대한 모든 것을 쓴 책. 눈, 뇌, 얼굴과 피부, 내장기관, 혈액 등으로 나눠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실었다.
〈1만3천원·효형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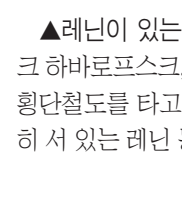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캐릭터 인물 사전=문학작품, 영화, 광고 등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소개했다. 1위로 꼽힌 말보로 맨을 비롯, 산타클로스, 프랑켄슈타인, 셀복투스, 돈 키호테, 미키 마우스 등 101가지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
〈프인돌·1만2천원〉



▲꿈은 소멸하지 않는다=기원전 1세기 노예 반란을 일으켰던 스파르타쿠스부터 로자 룩셈부르크, 스탈린을 거쳐 1970년 칠레의 대통령 아옌 데까지 세계 혁명가 15인의 삶과 투쟁을 조명한 책. 박상철(전남대 사학과) 교수 등 서양사 전공 학자들이 집필했다. 〈한겨레 출판·1만7천원〉



▲여신들로 본 그리스 로마 신화='창조 이야기', '자존심과 아름다움, 그리고 질투', '욕기와 독립심', '사랑과 여인물' '초능력과 예언' 등 6개 주제로 나눠 아리아드네, 안티고네, 엘렉트라, 다프네, 아마조네스 등 여신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두레·1만2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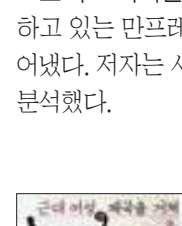
▲레닌이 있는 풍경=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 이르쿠츠크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9천938km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떠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상엽의 여행기. 쓸쓸히 서 있는 레닌 동상 등 러시아의 풍경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신책자·1만4천원〉



▲그대를 사랑합니다(전 3권)=인터넷 만화가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강철의 대표작인 '순정만화 시즌 3'다. 차에 걸린 아내를 돌보며 주차장에서 일하는 장봉근 할아버지, 우유 배달을 하는 김만석 할아버지 등 노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따뜻한 만화다. 〈문학세계사·9천200원〉



▲풀밭 위의 돼지=2005년 '세계의 문학'을 통해 등단한 김태용의 첫번째 소설집. 아내, 돼지와 함께 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찾는 표제작을 비롯해 '오른쪽에서 세번째 집' '중력은 고마워' '편백나무 숲 아래로' 등 10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다. 〈두레·1만2천800원〉



▲러브 사이언스=독일 타게스 슈피겔에서 과학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만프레트 타이젠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풀어냈다. 저자는 사랑의 언어, 화학작용, 본능, 법적 등 네가지 코드로 분석했다.
〈추수밭·1만2천원〉



▲근대 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일제하 조선에서 일본으로 유학한 여학생들의 의식과 귀국 후의 삶. 그들이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책. 교토대학에서 식민지 시기 조선인 여자유학생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박선미 씨가 집필했다.
〈침비·1만5천원〉

100년의 사랑 부채표 동화약품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쉽고 뛰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이산화,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섭취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광고실의전화 928-0200